

17세기 전반 唐糧의 운영과 국가의 재정부담

최주희 (국학진흥원)

발표요지

唐糧은 임진왜란기 명군을 위한 군량미로 중국 내지에서 수송해 온 곡식을 일컫는다. 명군은 군량을 본국에서 직접 수송해 와 의주에 비축해 두었는데, 명나라 군사가 양남(호남, 영남)에 주둔하면서 조선정부는 의주에 비축해 두었던 당량을 남쪽으로 운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당량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광해군 10년(1618)

명에서 후금을 공략하기 위한 지원군 수천 명을 징발하라는 咨文이 내려오고, 광해군

14년(1622)에는 명의 毛文龍이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 정부에 군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조선 정부는 양서 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별도의 結稅를 추가로 거두어 이를

毛文龍의 진영에 바쳤다. 모문룡의 군대에 지급하는 군량이라 하여 毛糧, 혹은 양서 지방의

양곡을 바친다 하여 西糧이라고도 불렀다. 1634년(인조 12)에 갑술양전(甲戌量田)으로 삼남의

토지 결수가 늘어나고 병자호란 이후 군량으로 소비되는 곡식이 감소하자, 토지에 추가로 거두었던 결세가 대부분 혁파되었는데, 서량만은 이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1646년(인조 23) 무렵에서야 폐지되었다.

약력

〈최주희 /Choi Joo Hee〉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문학석사(역사학). 2014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졸업, 문학박사(한국중세사)

2014년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韓國學中央研究院(the Academy of Korean Studies)의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韓國國學振興院(the Koreastudy Institute)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운영 및 시장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작은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宣惠廳의 운영양상(한국사연구 176, 2017)’, ‘군역법 시행 전후 訓練都監의 재정운영 양상(역사와 현실 102, 2016), Confucian business ethics in Korea: pre-modern welfare state(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2, 2016) 등이 있다.